

國語 特殊助詞의 意味

金 映 利

目 次

- I. 緒 論 : 特殊助詞의 性質
- II. 本 論 : 特殊助詞의 意味
 - 1. 「는/은」과 「야」
 - 2. 「도」, 「까지」, 「마저」, 「조차」, 「라도」
 - 3. 「만」과 「나」, 「나마」
- III. 結 論

I. 緒 論 : 特殊助詞의 性質

國語文法에서 特殊助詞¹⁾은 屈曲接辭의 하위범주에 속해 있는 依存形式으로서 格助詞와는 確연한 異質性 내지 特殊性을 보여주는 意味限定語이다. 特殊性이란 주로 意味論·話用論의 性格을 띠는 것으로서, 國語의 文章을 보다 論理의이면서도 풍부한 情緒를 나타내도록 하는 중요한 畧을 차지한다. 이러한 特殊助詞의 性質은 다음과 같다.

첫째, 文法的 關係를 나타내는 格에 상관없이 여러 成分에 두루 붙되 어떤 特別한 文法的 意義를 보충하여 준다.

둘째, 形이 늘거나 줄어드는 變動이 없으며, 붙을 경우와 붙지 않을 경우

1) 통사상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의미론적인 면도 갖고 있으며, 분포상으로도 체언 외에 용언과 부사에도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타조사들과도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면에서 '특수'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수조사'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의 뜻이 사뭇 다르다.²⁾

세째, 대개 意義部, 즉 實辭에서 轉成되었다.

네째, 助詞가 둘 이상 겹친 때가 많고 格助詞의 앞이나 뒤에도 붙는다.

다섯째, 體言 외에도 用言의 名詞形, 副詞形 轉成語尾, 一部 連結語尾, 그리고 副詞에도 연결된다.

여섯째, 特殊助詞는 體言보다는 뒤에 연결되는 用言을 수식하는 性格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서 같은 意味를 지닌 副詞와 共起될 때 그 뜻이 더욱 확연해진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本稿는 많은 국어의 特殊助詞들 중에서 意味關係上 서로 공통점이 있는 것끼리 묶어 「는」과 「야」, 「도」와 「까지」, 「마저」, 「조차」, 「라도」, 「만」과 「나」, 「나마」를 意味論의 입장에서 그 意味를 살피고자 한다.

Ⅱ. 本 論 : 特殊助詞의 意味

1. 「는/은」과 「야」

1) 話題・對照의 「는/은」

(1) 話題의 機能

特殊助詞 「는/은」은 어떤 사물을 論述의 題目으로 삼는 것을 보여주는 話題의 機能을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는/은」이 연결된 요소가 다른 요소와 對照됨을 나타내는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³⁾

國語의 文은 敘述되는 것을 나타내는 部分인 話題와, 그것에 대해 敘述하는 部分인 評言으로 되어 있다. 國語에는 話題의 所在가 標識인 「는/은」을 동반하여 文頭に 나타난다. 文頭に 오기 때문에 종래에는 格助詞의 범주에

2) 「이」는 「1」로도 쓰이고, 「을」도 「리」로도 쓰이며, 이것이 붙지 않아도 뜻이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도」는 붙지 않을 경우에 뜻이 매우 달라진다.

3) 대조의 기능에 「는/은」의 주된 의미가 있다고 보아, 최현배는 「는/은」을 다름도움토「相異補助詞」라고 했다. 우리말본(1961), 정음문화사, pp.638 ~ 639.

넣는 일도 있었으나, 이는 主格助詞와 「는/은」의 결합에서 主格助詞가 脫落되고 「는/은」이 被接語에 직접 연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는/은」은 主格助詞가 될 수 없다.

話題의 위치에 올 수 있는 것은 話者和 聽者가 이미 알고 있는 情報로서 情報 傳達能力이 낮지만, 「가/이」가 연결된 主語表示構造는 述語가 이미 알려져 있고, 그것이 무엇에 대해 행해지고 있느냐를 묻기 때문에 文의 強勢가 主語에 놓인다. 이렇게 話題는 이미 알려진 限定的 知識이어야 하므로, 話題가 될 수 있는 요소는 “固有한 存在”, “이미 앞서 언급된 요소”, “1·2인칭 代名詞”, “이·그·저 등의 指示詞” 등이다. 만약 非限定的 語辭가 話題가 될 때에는 그 자신이 속한 類概念을 뜻한다.

- (1)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위에서 「는/은」被接語 ‘사람’은 類 全體를 총칭하는 名詞이기 때문에 話題로서 성립 가능한 것이다. 이 때에 文은 일반적인 원칙을 나타내게 된다.

話題는 限定的 知識이어야 하므로 非限定的인 不定語辭에는 연결될 수 없다.

- (2) a. *누구는 밥을 먹었니?
 b. *언제는 방학이니?
 c. *어디는 동쪽이냐?
 d. *무엇은 거기 있느냐?

위에서 「는/은」 대신에 「가/이」가 오면 자연스런 文章이 된다. 그러나 不定語辭에 「는/은」의 연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다음을 보면,

- (3) a. 누구는 싸우고 싶겠느냐?
 b. 언제는 결과가 좋았느냐?
 c. 어디는 못 가겠느냐?
 d. 무엇이 잘 할 수 있겠느냐?

문 (3)이 설의적, 반어적 표현일 때 연결이 가능한데, 이 때는 의문의 형식으로全體否定的의 뜻을 담고 있다.

話題는文末의敍述語와 호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포상 몇 가지 제약을 받는다. 첫째, 포유문 내의體言은話題가 되지 못한다.

- (4) a. 꽃 피는 봄이 더욱 좋다.
b. *꽃은 피는 봄이 더욱 좋다.

위의 (4b)에서 「는/은」은 종속문에 있기 때문에 「가/이」로 중화된다면 자연스런 문장이 된다. 왜냐하면 「가/이」는 가까이 있는敍述語에 걸리기 때문이다.

둘째, 'NP₁의 NP₂'의 형식에서文章全體가 NP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일 때만 NP₁은話題가 될 수 있다.

- (5) a. 철수의 형이 과자를 샀다.
b. 철수는 형이 (철수에게 줄) 과자를 샀다.
c. *철수는 형이 (누나에게 줄) 과자를 샀다.

셋째, 관용어구를 이루는 단어들은 개별적인意味機能을 하지 않고全體로서의意味機能을 하기 때문에 그體言은話題가 될 수 없다.

- (6) a. 지진으로 도시가 쑥밭이 됐다.
b. *쑥밭은 지진으로 도시가 됐다.
c. 지진으로 도시가 쑥밭은 되었지만 주민들의 힘으로 곧 복구됐다.

(6c)는 가능하지만, (6b)는 “쑥밭이 되다”라는 관용어구 속의 체언 “쑥밭”이文頭로 나아가話題가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助詞「는/은」은文頭에서話題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 對照의 機能

特殊助詞 「는/은」은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다름을 나타내는 對照의 意味를 갖는다. 이 때는 姊妹項目⁴⁾의 有無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데, 姊妹項目을 선명히 알 수 있으며, 「는/은」被接語가 통솔하는 敘述語는 姊妹項目이 이끄는 敘述語와 對照됨을 나타내는 관점이다.⁵⁾

‘對照’일 때는 낱은 정보에 국한된다는 제약이 없으며, 文頭 이외의 위치에서 體言, 副詞, 用言의 副詞形에 연결된다.

- (7) a. 그 곳에 가게는 있었다.
- b. 이것을 조금은 줄 수 있다.
- c. 이것을 먹지는 못한다.

위의 예문 (7)의 舍意文을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7) a. 다른 것은 없어도
- b. 많이는 주지 못해도
- c. 만지거나 볼 수는 있어도

각기 姊妹項目을 예상할 수 있고, 實際文과 對照의 意味를 지닌 敘述語를 상성해 볼 수 있다.

話題의 「는/은」은 나머지 분장으로부터 독립되어 문장 전체에 관계하지만, 對照의 「는/은」은 자신이 연결된 요소만을 수식한다.

4) 실체문 「X+ 는/은+ P(α)」에 대해 함의문에서 「Y+ 는/은+ P(β)」를 예상할 때, ‘Y’는 ‘X’에 대한 자매 항목이며, ‘P(α)’와 ‘P(β)’는 의미가 대조되는 서술어이다.

5) ‘대조’는 자매항목의 존재가 명확한데 반해, ‘회제’는 자매항목이 무시·방치되는 것이며, 자매항목을 전혀 예상키 어려울 때는 ‘는/은’은 ‘강조’의 의미를 갖는다.

(8) 나는 연필은 하나를 사고, 노트는 둘을 샀다.

위에서 ‘나는’은 話題에 해당하고, ‘연필은’과 ‘노트는’은 바로 뒤의 ‘하나를 사고’, ‘둘을 샀다’를 수식하는 對照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對照의 「는/은」은 포유문 내에서도 제약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9) a. 향기가 좋은 꽃이 피었다.

b. 향기는 좋은 꽃이 피었다. (오래가지는 않지만)

또한 관용구 내에서도 對照의 「는/은」은 붙을 수 있는데, 앞의 예문 (6c)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助詞 中에서 「야」는 ‘對照’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는/은」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對照의 「는/은」은 「야」와 대치가 가능해진다.

(10) a. 형은 잘 하나 동생은 못한다.

b. 형이야 잘 하지만 동생은 못한다.

c. *형이야 잘 하지만 동생이야 못한다.

d. *형은 잘 하지만 동생이야 못한다.

위에서 (10a)를 (10b)처럼 하는 것은 가능하나 (10c)나 (10d)처럼 바꾸면 어색해진다. 그것은 「야」와 「는/은」 사이에 미미한 意味差가 있기 때문인데, 이는 뒤에 언급된다.

2) 對照의 「야」

助詞 「야」의 意味는 「는/은」과의 연관성 위에서 파악될 수 있다. 「야」는 對照의 「는/은」과 바꿀 수 있는데, 「는/은」에 비해 분포가 제한되어 있다. 예문 (10c)와 (10d)에서 보듯 「야」가 두 번 나타나거나, 두번째의 「는

／은)을 「야」로 바꾸면 어색해진다. 特殊助詞 中 「는／은」, 「도」, 「만」을 제외하면, 두 번 이상 나타나면 어색해진다. 만일 話題의 「는／은」을 「야」로 바꾼다면 본래 話題였던 요소가 對照로 나타난다. 이것은 언제나 「야」가 對照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앞의 예문 (1)을 가지고 살펴보면,

(1)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1)'사람이야^야 이성적 동물이다. (다른 것은 어쩐지 몰라도)

(1)보다 (1)'에서 더욱 對照의 뜻이 강함을 느낄 수 있다.

「는／은」이 話者의 主觀과 무관한 客觀的 意味의 助詞라면, 「야」는 ‘當爲’라는 話者의 主觀을 나타내는 主觀的 意味의 助詞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客觀的 묘사문에 쓰이면 어색해지고, 不定代名詞에는 연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話者가 알지 못하는 것이 ‘當然’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時間副詞나 數量副詞는 대부분 對照되는 意味를 지닌 또 하나의 副詞와 짝지을 수 있기 때문에 對照의 「는／은」과 「야」가 상당히 자유롭게 연결된다.⁷⁾

對照되지 않은 환경에서 「야」가 쓰이면 感嘆의 효과를 가져오고, 의문의 형식으로 否定을 표현하는 경우는 「는／은」의 경우처럼 설의법적 표현에 해당한다.

2. 「도」, 「까지」, 「마저」, 「조차」, 「라도」

1) 同類提示, 極端表示의 「도」

(1) 同類提示

「도」가 갖는 여러 意味들 중에서 수된 意味는 亦同(also)이라고 할 수 있다. “A도 B”라는 표현 속에는 제시된 사실 내용과 동일하거나 類似한

6) 특수조사 ‘-야’, ‘-나’, ‘-나마’ 앞에 ‘-이-’가 오는 경우, ‘-이’를 서술격 조사로 보겠다. 특수조사는 타조사와도 결합하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 뒤에 결합된 경우라고 본다.

7) ‘가끔-자주, 더-덜, 빨리-천천히’ 등 대조의 의미를 지닌 부사와 대응될 수 있다.

것이 전제되어 있다. 즉, “A 아닌 어떤 것이 B이고, A도 역시 B”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도」와 共起가 가능한 副詞는 ‘역시, 또한’ 이고, 호응되는 敘述語는 「도」와 類義的인 것들, “마찬가지다. 동일하다, 그렇다, 한가지다” 등이 된다.

(11) a. 철수도 학교에 간다.

b. (누군가 학교에 갔고) 철수도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에 간다)

위 (11a)는 (11b)로 나타내도 뜻이 같다. (11b)는 (11a)에 내포된 意味라고 할 수 있다. 特殊助詞와 副詞, 用言 이들 三者는 특수한 관계를 갖는데,⁸⁾ 특히 「도」에서는 서로 類義的이면서도 重複共存的인 긴밀성을 갖는다.

한편 ‘역시’의 뜻을 지닌 「도」는 同類的인 사실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즉, X와 Y가 동일한 敘述語이거나 혹은 類義的인 敘述語로 공존되었을 경우 이들은 하나의 서술어로 통합된 병렬적 제시 구문으로 변환이 가능해진다.

(12) a. 맛도 좋으려니와 향기도 좋다.

a'. 맛도 향기도 좋다.

b. 양식도 모자라고 돈도 부족하다.

b'. 양식도 돈도 모자라다. (부족하다)

(12a)가 (12a')로, (12b)가 (12b')로 변환이 가능한 것은, 「는/은」이나 「야」와는 달리 「도」의 서술어는 서로 돕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⁹⁾ 또 두 敘述語가 하나로 통합될 수는 없지만, 敘述 內容의 방향이 동일한 경우에는 두 敘述語를 병렬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8) 조사와 부사의 共起를 보면; 「야」~물론, 오직~「만」, 더군다나~「까지」 등을 들 수 있다.

9) 홍사만은 「는/은」과 「야」처럼 두 서술어가 반대의 의미를 갖는 것을 表別, 「도」 「까지」, 「마저」 등에서처럼 두 서술어의 의미가 비슷한 것을 協隨라고 했다. 국어 특수조사론, 학문사(1983).

- (13) a. 가정도 부유하고 머리도 좋다.
 a'. 가정도 머리도 부유하고 좋다.
 b. 디자인도 어색하고 색깔도 충충하다.
 b'. 디자인도 색깔도 어색하고 충충하다.

한편 「도」被接語가 서로 反意的인 것일 때는 이 양극 사이에 있는 다른 항목들이 모두 포함된다.

- (14) 죽지도 살지도 못한다.

위의 「도」被接語 ‘죽다’와 ‘살다’ 사이에 있는 모든 범위의 동작 ‘먹다, 자다, 놀다, 일하다...’ 등이 포함되어, ‘어떻게도 못한다’는 뜻으로 된다. 이것은 뒤에 다룰 極端否定에 연관된다.

‘역시’의 뜻을 지닌 「도」는 「까지」, 「마저」, 「조차」와 부분적인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까지」, 「마저」, 「조차」가 極端을 나타내는 면이 강하므로 분류하여 살펴겠다.

(2) 極端表示

「도」가 極端을 表示하는 것은 ‘역시’의 뜻과 별개의 意味가 아니라, ‘역시’로만 읽어서는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경우이다. A라는 극단적인 예 [기대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A보다 약한 [기대하기 쉬운] 경우는 당연히 성립함을 보이려 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즉, ‘역시’의 뜻이 화자의 감정에 의해 극한으로 강조되고 과장되어 「까지」, 「마저」, 「조차」의 영역까지 그 意味의 범위가 옮겨간 것이다.

- (15) a.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b. 말단직원도 해고되었다.
 c. 용돈도 주었는데 불평하니?

위의 예분들은 모두 話者의 기대내용, 즉 통상적 판단 기준에서 당연히

되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또 「도」는 다른 特殊助詞에 비해 談話狀況에 크게 좌우된다. 그래서 앞의 예 (11)도 話者가 ‘철수’라는 「도」被接語가 “학교에 가기를 꺼린다”고 기대했었다면 ‘極端’의 意味로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전혀 기대치 못했던 사실일 경우 ‘感嘆’의 意味로까지 파악할 수 있다. 極端이라는 점에서 「까지」, 「마저」, 「조차」는 「도」와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 각각은 약간의 意味差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뒤에 언급하게 될 것이다.

한편, 「도」가 極端否定的 뜻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被接語가 數의 최소 단위가 되는 ‘하나(한)’을 취하거나¹⁰⁾ 不定語辭인 경우이다.

- (16) a.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b.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16a)는 ‘전혀’ 본 일이 없다는 뜻으로 極端否定을 표현하고 있으며, (16b)는 限定指示詞로 지시되는 否定的 意味가 部分的인 否定을 나타내는데¹¹⁾ 인해 全體否定을 나타낸다.

한편, 助詞 「도」는 否定敘述語와 친밀하다. 다음을 보면,

- (17) a. *누구의 도움도 있었다.
a'. 누구의 도움도 없었다.
b.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
b'. 누구의 도움이 없었다.

(17b)와 (17b')처럼 格助詞일 때는 ‘있다’와 ‘없다’ 둘 다 연결이 자연스럽지만, 「도」일 때는 否定敘述語를 선택하는 共起關係가 성립된다. 否定敘述語와의 친밀성은 「도」가 一般語辭를 취하여 첨가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10) 극단의 긍정에는 ‘십, 천, 만, 백’ 등 십의 배수들이 취해지며, 「도」의 연결이 부자연스럽다. 「도」는 부정문에서만 수량화가 가능하다;

ex. ㄱ) 천날 만날 [=늘] 공부한다.

ㄴ) *천날 만날도 공부한다.

11) ex. 선생님도 설명할 수 없었다→선생님 역시 설명할 수 없었으나 할 수 있는 사침이 있을지도 모른다.

(3) 讓步·許容의 表示

「도」被接語가 話者에게 일반적으로 불만스러운 것이고, 敘述語가 讓步·許容의 뜻을 가진 것이 연결되면, 話者는 기대치보다 격하된 상황에 대해 讓步·許容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18) a. 낚은 것도 꽤 좋다.
 b. 험한 것도 꽤 좋다.
 c. 죽도 개의치 않는다.

위에서 話者는 ‘새 것’, ‘비싼 것’, ‘밥’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없는 상황이므로 물론 좋지는 않지만 ‘낚은 것’, ‘험한 것’, ‘죽’도 꽤 좋다는 讓步·許容의 意味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 助詞 「도」는 「라도」나 「나마」로 대체시킬 수 있다.

(4) 強調·感嘆의 表示

助詞 「도」는 談話狀況에 크게 좌우되는데, 앞의 예 (11a)를 強調·感嘆의 意味로 풀이할 수도 있다.¹²⁾ 強調나 感嘆의 뜻을 지니는 경우는 姉妹項目を 예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도」는 助詞 「나」와 함께 程度副詞에 쉽게 첨가되는데, 이 때에는 언제나 強調의 뜻을 담고 있다.

2) 極端 表示의 「까지」

特殊助詞로 쓰일 때의 「까지」는 「도」로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意味上 「도」가 極端을 表示할 때 類義의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極端을 나타내기 때문에 副詞 ‘심지어, 급기야’ 등과 호응한다. 그러므로 ‘A도 X, B도 X,

12) 강조·감탄의 「도」를 최현배는 느낌 토씨 [감탄조사]라고 하여 따로 다루었다: 최현배 (1961), pp. 650 ~ 651.

C도 X'일 때 'C'에만 「까지」가 붙을 수 있으며, 기대하기 힘든 極端의 일이므로 당연한 일을 나타내는 文章에 쓰이면 어색하다.

- (19) a. 공부를 못하는 철이[○]까지 상을 받았다.
 b. ?우등생인 영자[○]까지 상을 받았다.

‘철이가 상을 받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극단적인 경우이므로 「까지」의 연결이 자연스러우나, ‘영자가 상을 받는 것’은 쉽게 기대할 수 있는 일이므로 極端의 사실에 해당되지 못한다. 따라서 「까지」의 연결은 부자연스럽다.

極端을 나타내는 「마져」, 「조차」와의 공통점은 肯定的 一般認識에 첨가되어 否定的 極端을 예시함으로써 否定을 강화하고, 否定的 一般認識에 첨가되어 肯定的 極端을 예시하고 肯定을 강화하는 것이다.

- (20)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조차, [○]까지, [○]마져) 성적이 안 좋으니 하물며 공부하지 않는 애들이야!

한편, 「마져」, 「조차」와의 차이점은, 「까지」는 敘述語의 가능성이 희박한 被接語에 첨가되고 否定敘述語와의 共起를 형성하지 못하는데 반해, 「마져」와 「조차」는 極端의 否定을 위해 가능성이 높은 被接語를 선택하고 否定敘述語와 共起한다.

- (21) a. 대학[○]까지 졸업했다.
 b. 국민학교([○]조차, [○]마져) 나오지 못했다.

(21a)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대학’을 인정했으므로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論外가 되고 있으며, (21b)는 그 반대의 해석을 내릴 수 있다.

3) 極端 表示의 「조차」

助詞 「조차」는 中世國語의 動詞 ‘쫓다[從, 追]’에서 轉成되었는데, ‘역시’

의 의미 위에 話者의 主觀, 즉 極端을 나타낸다. 이 점은 「까지」와 비슷하다. 그러나 차이점은, 「까지」는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을 나타내지만, 「조차」는 기대 밖의 일을 나타내므로 話者의 의도가 반영된 문장이나 당연한 일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도」와는 「까지」보다 더욱 밀착되어 있다. 「까지」는 「도」의 의미영역 중에서 ‘亦同’이나 極端 表示’의 경우에만 한정되는데 비해, 「조차」는 ‘讓步·許容’의 意味, ‘副詞下의 연결’을 제외하고는 거의 「도」와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否定敘述語와도 「까지」보다 더 밀착되며, 최소수량사나 不定語辭 아래에 연결되어 極端否定을 나타낼 때도 「까지」보다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도」의 반복을 통해 否定을 형성할 때, 즉 「도」被接語가 양극에 있는 것일 때는 「조차」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한다. 앞의 예문 (14)를 보면.

(22) *살지^으조차 죽지^으조차 못한다.

(14)의 「도」의 반복을 통한 極端否定을 「조차」로 대체해 놓은 것인데, 어색함을 느낄 수 있다.

4) 極端 表示의 「마저」

語源的으로 中世國語의 動詞 ‘못다〔終〕’에서 轉成되었기 때문에 그 用言的 잔재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그래서 「마저」는 주어진 항목들 중에서 마지막의 것에 붙는다. 「까지」는 話者의 감정이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던 그 곳부터 최종의 극까지 다소 융통성이 있으나, 「마저」는 최종의 한 정점에 한정되는 폐쇄성이 있다.

- (23) a. 소^으까지 팔고 집^으까지 팔았다.
 b. 소^으까지 팔고 집^{마저} 팔았다.

「마저」는 마지막이라는 순서가 話者의 판단에 의해 주어지는 경우와, 話

者의 의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前者의 경우, 즉 話者が 선정
한 몇 개의 항목들 중 가장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의 「마
저」는 「까지」나 「조차」로 바꿀 수 있다.

- (24 a. 기대를 걸었던 큰아들마저 실패했다.
b.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었다.

(24a)의 경우는 話者の 판단이 들어있는데 이 때 「마저」는 「조차」나
「까지」로 바꾸어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24b)처럼 마지막이라는 순서가
話者の 의지에 관계없이 주어진 경우는 「마저」를 「까지」나 「조차」로 대
치시키면 어색해진다.

助詞 「마저」는 「조차」와 함께 否定被述語와 共起한다. 그리고 文頭에서
가능성이 높은 被接語를 선택하여 極端의 否定을 나타낸다.

5) 讓步·許容의 「라도」

助詞 「라도」의 被接語는 話者の 의지에 의해 적극적으로 선택된 최초의
항목이 아니다. 기대는 그것 이상을 바라고 있으나 바라는 항목에의 선택이
배제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항목이 되어 ‘二次의 選擇’의 意味를 지
닌다. 이 점에서 助詞 「나」, 「나마」와 類義의이다. 그리고 ‘二次의 選擇’
이기 때문에 話者の 입장에서 보면 ‘讓步’나 ‘不滿’의 意味를 지니 助詞
「도」와 類義의이다. 이 때문에 「도」와 관련 항목으로 놓은 것이다. 「라
도」가 ‘讓步, 不滿의 許容’의 意味를 가질 때는 被接語가 가치가 높은 것
을 수 없다. 가치가 높은 것은 不滿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25) a. 낡은 것이라도 괜찮다.
b. ?새 것이라도 괜찮다.

「라도」는 또한 極端을 나타낸다.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연결되어 否定이
나 肯定을 나타내는데, 「도」와 有緣的이다. 이 때에는 ‘二次의 選擇’이라

는 意味가 없으므로 「나」로 대치시키면 어색해진다. 「나」의 대치문이 성립되려면 共起되는 敘述語의 肯·否定의 관계를 「라도」의 경우와는 반대로 놓아야 한다.

- (26) a. 천재^{라도} 풀 수 없다.
 b. *천재^나 풀 수 없다.
 b'. 천재^나 풀 수 있다.

한편, 「라도」의 被接語가 최소 수량사일 때는 보편수량화를 형성하는데, 「도」와는 달리 뒤에 肯定과 否定敘述語의 연결이 다 가능하다. 이 때 肯定의 敘述語가 올 경우는 「나」의 意味에 가깝고, 否定의 敘述語가 연결되면 「도」의 意味에 가깝게 된다.

- (27) a. 한 치^{라도} 물러설 수 없다.
 b.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3. 「만」과 「나」, 「나마」

1) 第一의 選擇 「만」¹³⁾

特殊助詞 「만」은 어떤 상황에서 「만」이 연결된 요소가 선택되면, 선택 가능성이 주어졌던 다른 요소들은 전부 배제되고 그것 하나만 ‘한정’하는 意味機能을 갖는다. 「만」은 ‘單獨·選擇’의 기능을 하므로 舍意文의 敘述語는 實際文의 敘述語와 否定, 相反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對照’의 意味를 지닐 때의 「는/은」과 공통된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A는 B’에서는 ‘A → B’는 성립하지만 역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A만 B’의 표현은 ‘A ↔ B’가 성립되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다.

- (28) a. 영이^은 학생이다.
 b. 영이^만 학생이다.

13) 「만」은 17 C까지는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였다. 18 C부터 어느 정도 단독의 의미를 나타내어 오늘날의 단독 보조조사 「특수조사」의 시발이 되었다. 20 C에는 완전히 특수조사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28a)에서 ‘영이’는 ‘학생’에 포함되기는 하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이 ‘영이’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28b)에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학생’은 오직 ‘영이’ 한 사람에 한정된다.

助詞「만」은 ‘單獨·選擇’의 意味에서 「나」, 「나마」와 類義的이다. 차이점은, 「만」은 몇 개의 항목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선택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배제되는데 비해, 「나」와 「나마」는 그렇지 못하고 ‘二次의 選擇’ 항목에 붙게 된다. 만일 「나」나 「나마」가 쓰일 위치에 「만」이 쓰이면 어색해진다.

- (29) a. 밥만 먹어야지
b. 밥이 없으니 죽만 먹어야지

(29b)의 경우 「만」 대신에 「나」, 「나마」가 더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話者が 원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선택한 항목이 붓되기 때문이다.

2) 第二의 選擇, 否定的 評價의 「나」

助詞「나」는 예상할 수 있는 여러 항목들 중에서 격하의 意味 價値를 가진 항목에 붙는다. 다른 항목에 대한 선택이 배제됨에 따라 이 항목이 선택됐기 때문에 ‘二次의 選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不滿’이나 ‘讓步’의 意味가 나타난다. 이런 환경에서는 「나」 대신에 「라도」나 「나마」를 대치해도 文에 큰 意味變化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29b)에 「만」 대신 ‘二次의 選擇’을 意味하는 「나」를 대치하면 文은 자연스럽게 되고, 「나」는 「라도」나 「나마」로 대치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항목들이 外部의 힘에 의해 배제당한 경우가 아니고 話者の 의지에 의해 배제되어, 「나」의 항목이 話者の 선택에 의한 때는 선택된 항목과 배제된 항목 사이에 객관적인 가치의 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不滿’이나 ‘讓步’의 뜻을 담지 않으며, 선택된 항목은 第二의 項目이 아닌 最終 項目이다.

β) 입맛이 없으니 죽이나 먹어야지.

위의 「나」 대신 「라도」나 「나마」로 대치시키면 文의 意味는 ‘不滿’이나 ‘讓步’의 뜻으로 바뀌어 버린다. (30)에서 話者는 다른 것을 자신의 의도에 의해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助詞 「나」는 「도」처럼 강한 感嘆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나」가 수량이나 程度表示語에 연결될 경우에는 과장된 感嘆을 표현한다.

3) 第二의 選擇, 肯定的 評價의 「나마」

「나마」는 ‘選擇’의 뜻을 지닌 「나」, 그 중에서도 다른 항목들이 外部의 힘에 의해 배제되고, 배제된 요소보다 선택항목의 가치가 적은 것일 때 쓰인다. 즉 客觀的 價値가 적은 요소에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와의 차이점은 「나」가 不滿스럽다는 評價를 내리는데 반해, 「나마」는 不滿을 다른 것으로 補償하려는 意味가 있어서, 話者 자신이 肯定的 評價를 내릴 때 쓰인다.

β) a. 쌀이 없어 죽이나 먹으니 한심하다.

b. 쌀이 없어도 죽이나^나마 먹으니 다행이다.

(32a)와 (32b)의 敘述語를 서로 바꾼다면 文意는 어색해진다. 왜냐하면 「나」는 ‘不滿’을, 「나마」는 ‘滿足’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Ⅲ. 結 論

以上에서 살펴 본 국어 特殊助詞의 意味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는/은」은 文頭에서는 話題의 기능을 하는데, 이 때 話題가 될 수 있는 요건은 話者와 聽者가 共有하는 限定的 知識이어야 한다. 文頭 이외의 위치에서는 對

照의 意味를 갖는데, 이 때는 限定的 知識이어야 하는 제약이 없다. 文頭에 非限定的 名詞가 오는데 話題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는 對照를 나타낸다. 對照의 「는/은」과 「야」는 대치가 가능하다.

助詞 「야」는 對照의 「는/은」과 상통하며 대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야」는 ‘對照’에다가 ‘當爲性’이라는 主觀的 요소가 첨가된 意味를 지닌다.

助詞 「도」는 제시된 것과 동일, 혹은 유사한 사실이 전제되었다는 점에서 ‘同類提示’의 意味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助詞에 비해 談話狀況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話者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기는 상황에 「도」가 첨가되면 極端의 意味를 갖게 되고,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師妹項目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는 強調·感嘆의 意味를 갖게 된다. 極端의 意味를 지닐 때는 「까지」, 「마저」, 「조차」와 類義的이다. 그리고 「도」는 彼接語가 話者의 기대치보다 격하된 상황일 때는 ‘讓步·許容’의 意味를 지니는데, 이때에는 「라도」, 「나마」와 대치 가능하다. 또 「도」는 최소 수량사나 不定語辭에 연결되어 極端的인 否定을 나타낸다.

助詞 「까지」는 極端表示의 면에서 「도」, 「마저」, 「조차」와 통하며, 辭接항목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고, 否定敍述語와의 共起가 부자연스럽다.

「마저」는 최종의 항목에 붙기 때문에 뒤에 다른 항목이 존재하지 못한다. 「조차」와 더불어 辭接항목은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고 否定敍述語와 共起가 가능하다.

「조차」는 「까지」, 「마저」보다 「도」와 더 밀착되어 있다. 「까지」, 「마저」가 가능성이 희박하나 있을 수 있는 일에 붙는데 반해 「조차」는 전혀 기대 밖의 사실에 첨가된다.

「라도」는 선택항목이 第一의 項目이 못되기 때문에 不滿이나 讓步의 意味를 갖는다. 그래서 「나마」와 대치 가능하다. 또 極端의 意味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때 「도」와는 달리 肯定과 否定의 敍述語가 다 연결될 수 있다. 肯定敍述語가 올 때는 「나」의 뜻에 가까우며, 否定敍述語가 연결될 때는 「도」의 뜻에 가깝다.

「만」은 화자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第一의 項目에 연결된다. ‘單獨·選擇’의 意味를 지니는 점에서 「나」, 「나마」와 有緣的이다.

助詞 「나」는 第二의 選擇項目에 붙으며, 선택된 항목에 대해 다소 불만스런 평가를 내릴 때 쓰인다. 수량이나 정도표시어에 연결되어 感嘆의 기능을 한다.

「나마」는 「나」의 第二의 選擇, 그 중에서도 外部의 힘에 의해 第一의 選擇이 배제된 경우에 쓰인다. 그러나 선택된 항목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대신 補償받으려는 意味가 담겨 있어 肯定的인 評價를 내리고 있다.

앞서 다른 國語 特殊助詞들의 意味를 간략히 요약해 보았는데, 意味面 외에도 通時的인 變化, 分布 등에도 주목해 볼 만하다. 특히 같은 特殊助詞에 속하면서도 統辭上의 기능이 다른 점, 「는/은」만이 異形態를 갖는다는 점은 앞으로 더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參 考 文 獻

- 金昇坤(1978), 韓國語 助詞의 通時的 研究, 大提閣.
- 成光秀, 朴喜淑(1979), 韓國 特殊助詞에 대한 構文·意味論的 考察, 關大論文集, 第7輯.
- 成善敬(1983), 助詞 ‘-는’에 대하여, 서울市立大學校 論文集, 17輯.
- 尹載遠(1983), 國語助詞의 複合樣相에 대한 考察, 釜山産業大學校 論文集 第4輯.
- _____ (1985), 補助助詞 「도」의 機能, 釜山産業大 論文集, 第6輯.
- 李相偶, 李根圭(1978), 韓國語의 助詞에 대한 分析, 圓大論文集, 第12輯.
- 蔡 旻(1977), 現代國語 特殊助詞의 研究, 國語研究 39號, 國語研究會.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洪思滿(1983), 國語 特殊助詞論, 學文社.

目 次

발간사

격려사

<논평>

秋史 金正喜의 學問과 藝術	梁博瑤 ... 7
고등학교 새 문법교과서의 理論과 指導	최규인 ... 17
連結語尾 研究: 옛 詩歌를 中心으로	金泰現 ... 55
{-있었-}의 機能에 관한 一考	洪誠海 ... 73
國語 再歸代名詞에 대하여	許淑子 ... 95
19世紀 國語의 音韻論의 考察	許允頤 ... 119
內包 論理言語에로의 發展과 그 構造	康祐順·金映利·金榮信 ... 143
<寶篋>의 인물에 나타난 자아와 세계	尹致富 ... 173
玄鎮健 小說의 構造分析: <문수종은 날>을 中心으로	全良淑 ... 191
<날개>의 삶의 空間과 그 意味	許珉碩 ... 209
濟州島民謡의 後敎 研究	邊聖久 ... 231
濟州 날개달린 아기 轉讖 傳說의 研究	夫良淑 ... 259
<삼공본풀이>의 構造分析과 形成過程考	任容雲 ... 285
民謡 提報者의 生涯와 辭說	李性勳 ... 305

<원서학술조사보고>

濟州道 南濟州郡 城山邑 溫平里	335
------------------------	-----

- 조사경위 · 마을개황 · 방언 · 민요 · 설화 · 신앙 -

<취보>

教授勸導

研究會 主要日誌

卒業生名單 · 卒業論文 · 現職務處(住所)	456
-------------------------------	-----